

'부채 200조원' 한전, 자회사 한전기술 지분 매각

미래에셋증권 SPC에 564만주 팔아...3500억원 자금 유동성 확보 한전, 지분 51% 남기며 경영권 방어... '민영화' 통한 기술 유출 우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자회사이자 발전소와 원자로 등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한전은 한국전력기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3500억원의 현금을 확보, 자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중간배당을 의결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만큼은, 전력기술의 민영화를 통한 기술 유출 우려 얘기가 나온다.

2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미래에셋증권 특수목적법인(SPC)에 한국전력기술 지분 564만 5094주(14.77%)를 매각했다.

현재 한국전력기술의 주당 거래가는 6만2000원으로 매각한 지분은 총 3500억에 달한다.

기존 한전이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65.77%였는데,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1%를 제외한 모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전이 지분을 51% 남기며,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전력기술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다 실패한 바 있는 한전은 PRS 계약 방식을 선택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한국전력기술 지분 매각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SPC와 PRS(Price Return Swap·주가수익스왑)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PRS는 해당 주식을 매각했을 때 주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원 소유자가 정산하는 차액정산 방식의 계약이다.

PRS 계약이 이뤄진 주당 주가 6만2000원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기술의 주당 주가가 6만2000원보다 떨어지면 한전이 미래에셋증권 SPC에 손실분을 보전해야하고, 주가가 6만2000원을 넘어서면 발생한 수익분을 한전이 받을 수 있다. 주당 주가에 따른 손실·수익분 정산은 PRS 계약 만기인 1년동

안 3개월마다 이뤄지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시 PRS 계약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정난에 빠져 있는 한전은 최근 자회사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액수의 중간배당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완화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200조 규모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자회사 6곳과 한전 KDN 등 7개사에 3조2000만원의 중간배당을 요청했고, 각 자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한전이 요구한 금액의 중간배당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1조 5600억원, 발전 5사 1조 4800억원, 한전 KDN이 1600억 등 총 3조2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한전의 자회사 지분 매각 및 이례적인 중간배당 요청 등은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지난 달 기준 한전채 잔액이 80조 1000억원에 달한 반면 지난해 한전 적자 예상치 6조원을 대입하면 올해 한전채 발행 한도가 74조60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자회사 중간배당 의결 및 한국전력기술 지분매매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추가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한전채 발행 잔액이 올해 발행 한도를 넘겨 신규 한전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한전이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자구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김동철 한전사장 “재무위기 극복 총력...전기요금 정상화 이뤄낼 것”

시무식 개최...실천 과제 등 제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재무위기 극복과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과 실천사항을 밝혔다.

〈사진〉

2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 사장은 “가장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비용이 3조3000억원이며, 하루 이자가 9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국민계 전기요금 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반드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전력망 적기건설,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신

기술의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적기건설 능력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 무대를 계속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발전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슬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IT기반 에너지 신기술의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며 “올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바리카 원전 4호기 등을 계기로 해외 송변전,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새해를 맞아 총 부채 200조 규모의 재무위기에 빠진 상황에 대해 임직원의 정신 무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같은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독점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가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 상생포럼'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날 28일 인재개발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와 함께 '2023년 농촌용수 상생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포럼은 통합물 관리와 효율적인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됐으며, '하천수 사용량 및 회귀수량 조사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농업용수에 대한 최근 현안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농식품부·국회입법조사처·건국대학교 등 농업용수 분야 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의 기초 조사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회귀량의 통계기준 정립 ▲하천수 사용량 활용사례 ▲센싱기술을 이용한 지표수 활용사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

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미래 농업용수 발전을 위한 정확한 회귀수량 및 사용량의 예측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농업용수 운영 기관들 간의 협조 및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향후 농업용 계획장비의 검증과 양수발전사업 등 농업기반 수공구조물의 성능평가를 계속할 것”이라며 “농업용수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지원,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우리나라 물 사용량의 40%를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만큼 효율적인 농업용수 활용은 중요하다”며 “미래 농업용수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소통 뿐만 아니라 학계와 현장 전문가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aT, 식량 부족 필리핀·라오스 등 아세안 3개국 쌀 4500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일 라오스를 마지막으로 '에프터' 제도를 통한 2023년 쌀 원조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에프터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소속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 및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쌀을 사전에 약장·비축하고, 비상시 에프터 회원국에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우리나라는 에프터를 통해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3개국에 4500 t의 쌀을 원조했다. 특히 지난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는 쌀 2500 t을 추가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에프터 회원 5개국에 23만5000 t의 쌀을 지원한 최대 공여국으로 꼽히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